

광산구 노조, 보건소장 재조사 촉구

구청 감사 결과 불복해 광주시 감사위에 자체 조사 요청 시 감사위선 자체 조사 불가하지만, 파견 조사 가능 입장

광주 광산구 보건소장이 직원들의 보건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구청 자체 감사 결과에 불복한 공무원 노조가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광산구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노조는 보건소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소장 갑질 의혹에 대한 재감사를 요구했다. 외부 전문가로 광주시 감사위원 2명을 선임해 조사의 공정성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초 광산구 감사관실은 보건소장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직권 남용이나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두 경고' 조치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벼주기식 조

사"라며 지난달 27일 상급기관인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5일 '구 자체 감사로 처분했던 사항으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돼 감사를 다시 진행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구체적이고 중대한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감사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

다만 시 감사위원회는 '시 감사위 소속 직원을 외부인으로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 직원 2명을 추천해 주겠다'며 명단을 노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자체 조사는 어렵지만 구청 감사관 추천이 들어오면 시 감사위 소속 직원 2명을 파견보내 조사하겠다는 시 감사위 입장은 앞뒤

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 감사위는 책임을 피하려는 풍수를 부리고 있다. 시 감사위 소속 직원 2명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려면, 피해자 중심의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구청 자체 감사 때 조사 대상이 제한됐고, 보건소장의 입장 위주로 조사가 이뤄졌다.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제시했는데도 당사자(보건소장) 진술로만 감사 결과를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 직원 2명을 추천해 주겠다"며 명단을 노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자체 조사는 어렵지만 구청 감사관 추천이 들어오면 시 감사위 소속 직원 2명을 파견보내 조사하겠다는 시 감사위 입장은 앞뒤

전혀 없다"며 "감사위원을 파견할 경우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제기된 의혹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보건소 조합원 85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광산구 보건소장은 ▲6급 이상 여직원의 보건휴가 사용 제한 ▲특정업체의 약품 지정 구입 유도 ▲폭언 ▲사적으로 특정 체조프로그램 개설·물리치료 기구 사용 ▲가족의 법인카드 부작정 사용 등의 의혹을 받았다.

조합원들은 ▲매주 과별 지정 직원 포함 점심식사 강요·외전 수렴 부재(식비) 직원 여비로만 계산 ▲부작정 업무 분장 ▲보건휴가 금지령에 대한 보건소장의 추궁(2차 피해) ▲보건소장의 독단적 근무평정 평가 제도 개선 등도 지적·요구했다.

한편 광산구 보건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노조 반발로 수리되지 않고 있다.

임형택 기자

日서 미군 항공기 2대 충돌·추락

6일 새벽 일본 남쪽 태평양 상공에서 훈련 중이던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2대가 충돌 후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NHK에 따르면 항공기 2대에 탑승하고 있던 7명 중 1명이 추가로 발견돼 총 2명이 구조됐으며 나머지 5명은 계속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와야 다케시(岩尾毅)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항공·해상자위대의 헬기와 함정 등으로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구조된 1명은 전투기 탑승자"라고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아직 실종자가 있는만큼 구조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도 "향후 미국 측에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미가 협력해 수색과 구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민간 선박 피해 등의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새벽 1시 40분경 야마구치(山口)현에 위치한 주일미군 이와쿠니 기지 소속 FA18 전투기와 KC130 공중급유기가 고지(高知)현 무로토(室戸岬) 지역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해상 상공에서 충돌 후 추락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톱복에 또 규모 5.7 지진

지난 8월 연이은 강진으로 500명 넘는 사망자와 40만명에 달하는 이재민을 낸 인도네시아 톱복에서 6일 다시 규모 5.7 지진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기상지진청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8시2분께 중부 서누사 탱가라 주의 톱복 일대를 강타했다.

진앙은 서누사 탱가라 주 주도 마타람 북서쪽 23km 떨어진 곳으로 진원 깊이가 10km로 얕다고 무함마드 파딜 기상지진청 대변인이 밝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지진이 규모 5.5로 마타람 서북서쪽 10km 지점에서 일어났으며 진앙이 남위 8.538도, 동경 116.037도이며 진원 깊이가 10.0km라고 발표했다.

아직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에 관한 신고와 보고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지각과 화산 활동이 왕성해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크고 작은 지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8월28일 톱복섬 일원에 규모 6.2 강진이 내습하고 바로 규모 5.6 여진이 뒤를 쫓았다.

8월19일 규모 6.9 강진이 발생해 최소한 1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8월5일에는 규모 7.0 강진으로 500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바 있다.

伊로마 북부에서 주유소 폭발로 2명 사망

이탈리아 로마 북부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5일(현지시간) 폭발이 일어나 2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이탈리아 ANSA통신을 비롯한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로마의 리에티 경찰서 안토니오 마노니 서장은 이날 주유소에서 연료 운반차 한 대가 저장소에 기름을 옮기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불이 나서 소방대가 출동해 처음의 화염을 진화하려는 순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그는 말했다.

폭발이 일어난 장소는 살라리아주 간선도로변이며 로마 북부로 통하는 주 고속도로의 도로변이다.

IS 추종세력, 2019년 첫날 뉴욕 공격 위협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세력이 내년 새해 첫날, 1월1일 뉴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4일(현지시간) 더 신폴 미국 매체 PJ 미디어는 최근 IS 추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뉴욕을 공격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를 유포했다고 이날 전했다.

IS 추종세력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경고 포스터에는 폐허가 된 뉴욕 맨해튼의 모습이 담겨있다. 또한 '곧 알라의 뜻대로 불신자들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2019년 1월1일"이라고 적혀 있다.

PJ 미디어는 IS 추종세력들이 폭발물 벨트와 차량 폭탄으로 공격을 수행하고, 저격수들이 총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광주 사립유치원 원장들 시교육청 집단 항의방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소속 유치원 원장들이 6일 광주시교육청을 집단 방문해 장휘국 교육감 면담과 감사 연기를 요구했다.

한유총 소속 원장 10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께 광주시교육청을 향의 방문한 뒤 교육감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1층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항의의 뜻으로 김밥을 주문해 1층 복도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유치원 원장들은 광주시교육청이 갑압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면담·감사 연기 요구

이날 원장들은 감사가 지속될 경우 폐원할 수도 있다며 교육청에서 폐원 관련 서류를 받아갔다.

한유총 광주지회장이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를 막지 못했다고 일선 유치원 원장들이 항의하자 최근 광주지회장이 시위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월까지 전체 사립유치원 172곳 중 규모가 큰 70여 곳의 감사를 우선 마치고 나머지는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조인호 기자



막으론 대학정시 지원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중로학원 2019 정시지원전략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환경부 "영산강 보 개방 후 수변공간 생기고 텃새 2배 ↑"

환경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를 완전개방해 관측한 결과, 수변공간이 생기고 텃새가 2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승촌보는 올해 3월 20일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해 4월 8일부터 완전 개방상태를 유지하다가 수막제배가 시작되는 기간인 11월 15일부터 목표수위(E.L. 6.0m)까지 회복했다.

죽산보는 작년 6월부터 부분 개방한 이후, 올해 10월 31일부터 완전개방 상태(E.L. -1.35m)를 유지하

고 있으며, 양수장 가동이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현 수위가 유지될 예정이다.

보 개방 이후 물의 흐름은 체류시간이 평균 7.3~20.1일에서 2.4~3.3일로 크게 감소(67.1~83.6%)하고, 유속도 1.9~3.4m/s에서 11.0~13.8m/s으로 큰 폭으로 증가(306~479%)하는 등 대폭 개선됐다.

특히 이번 개방으로 수계 전체에 모래톱 0.164km(축구장 면적 약 23배)이 발생했으며, 수변공간도 28.9% 증가(2.378km, 축구장 면적

약 333배)하는 등 개방 수계 중 가장 넓은 노출지가 나타났다.

또한 수변생태 공간이 넓어지고, 여울, 웅덩이 등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물새류와 맹꽁이, 삿,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영산강 수계 완전개방 이후에는 전월 대비 텃새화된 물새류 개체수는 68마리에서 126마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관찰 결과는 7일 수계 및 보별 민·관협의체에서 지역사회와 공유될 예정이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 [고객센터 1577-1000]